

세금-상품-선물을 넘어 커먼즈금융

김지음 (빈고 책임활동가)



자본에서 공유지로! 공유/자치/환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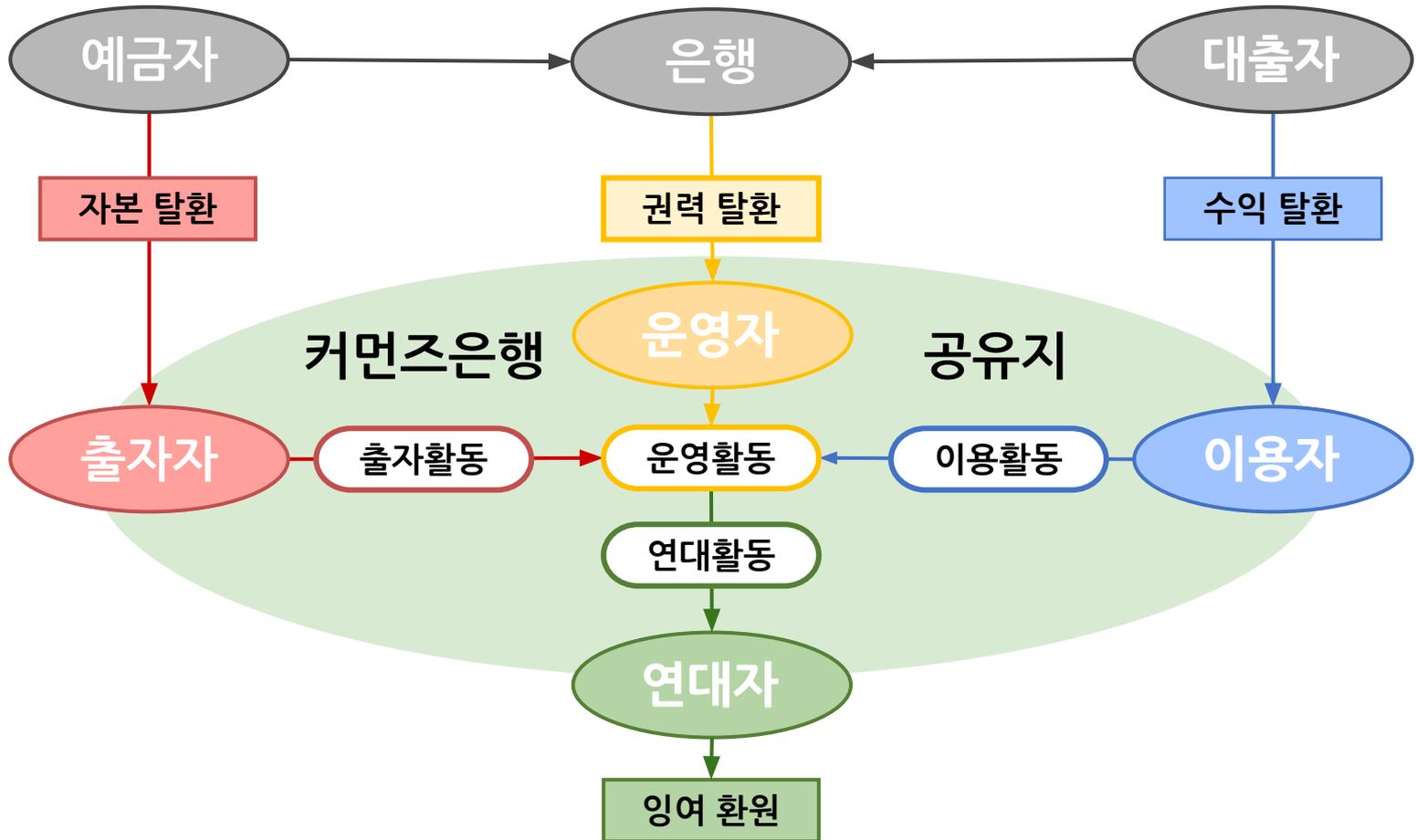
공동체은행 빈고

공동체은행 빙고

- 2008년 서울 해방촌 주거공동체 빈집 시작. 빈가게, 빈마을로 확장.
- 2010년 빈마을의 보증금과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빈마을금고로 시작.
- 여러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금융협동조합으로 확장.
- **2024년 11월 현재** 조합원 518명, 공동체 39개, 공유지 16개
- 자산 5.8억빈, 출자금 3.5억빈
- 누적 잉여금 1.6억빈
- 누적 공유지(공동체공간) 63곳
- <https://bingobank.org/>



커먼즈은행



국가의 타입과 교환양식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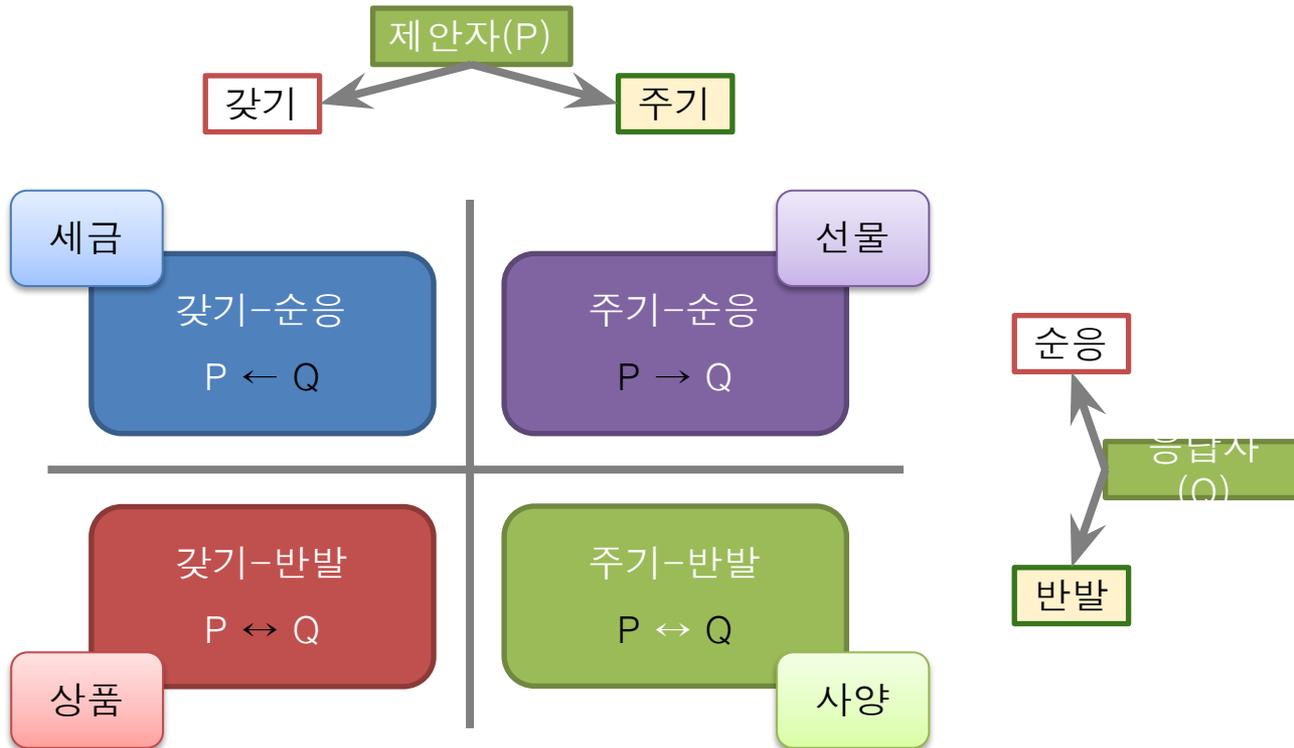


<국가의 네 가지 형태 (츨스키, 1968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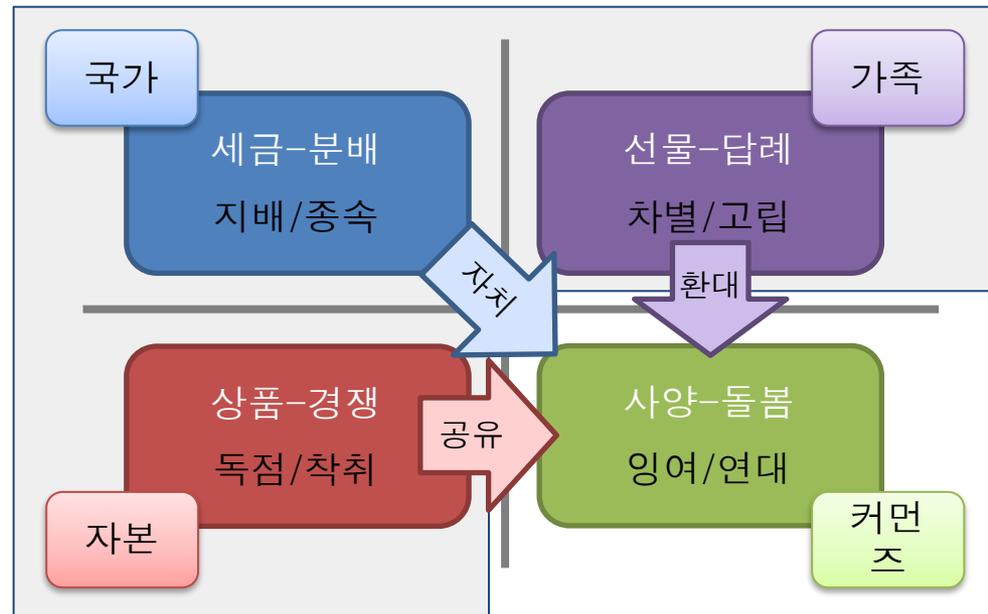


<교환양식론(가라타니 고진)>

교환의 분해 : 제안과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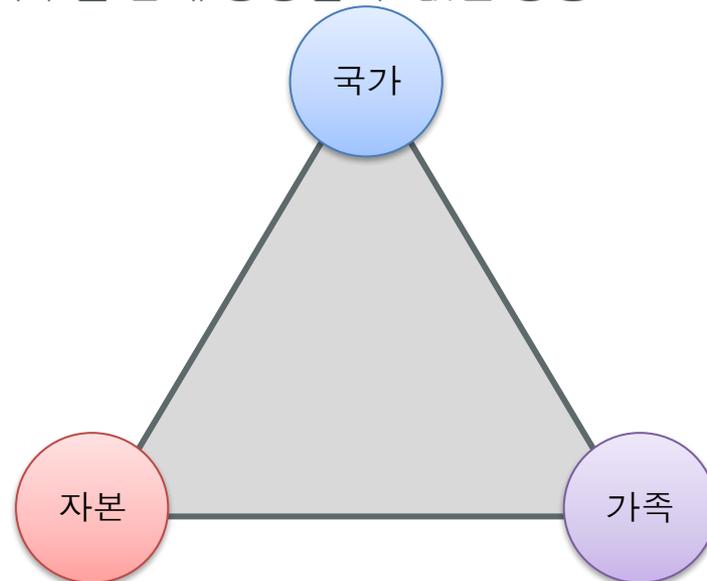


네번째 교환양식 : 사양으로 만드는 커먼즈



자본=국가=가족의 삼위일체

- 자본=국가=가족은 각각 상품-세금-선물 교환을 고유한 기반으로 하고 있음.
-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소멸되거나 대체될 수 없음.
- 현실에서 자본=국가=가족은 서로 보완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음.
- 삼위일체는 커먼즈를 위협하고 수탈하는 시스템이기도 함.
- 삼각체제는 공고하고 외부를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.



세금교환에 기반한 국가

- 가라타니 고진의 표현대로라면 국가는 수탈-재분배의 교환양식에 기반한 것.
-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금을 걷고, 세금을 사용하는 세금교환에 기반한 것.
- 수탈이 교환인 것은 상대의 순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.
- 지속적인 수탈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함.
- 답례가 역방향의 선물인 것처럼, 재분배는 역방향의 수탈.
- 조세에 저항하고, 예산은 우리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국가를 대하는 기본 자세
- 국가는 모두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, 모두에게 세금을 분배해야 하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됨. 평등과 공정.
- 모두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면 이를 전제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정책을 펴는 것도 가능해짐. 보편적인 부양자 또는 보편적인 화폐 발행자로서 국민의 의무를 요청
- 자본의 독점과 착취, 가족의 폐쇄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이 국가에게 있음



[그림 4]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(2018년)

(단위: %)



주 1. 호주와 일본은 2017년 데이터, 그 외 36개 국가들은 2018년 데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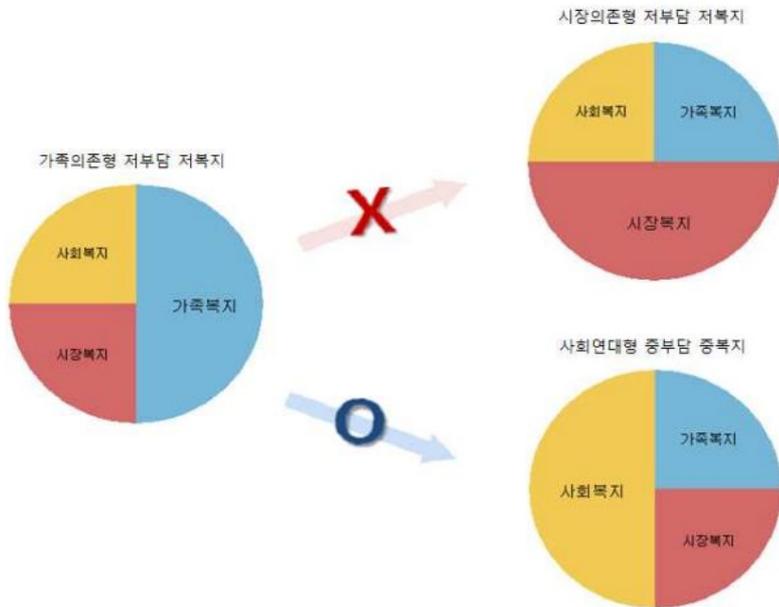
주 2. 그래프의 회색 선은 OECD 전체 38개국의 국민부담률 및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

주 3. 파란색 선 그래프는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의 변화 추이이며, 노란색 선 그래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'사회보현 수지균형 국민부담률'과 사회보장위원회의 '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' 전망 결과를 2020년부터 10년 단위로 2060년까지 연결한 추세

자료: OECD Revenue Statistics와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
국회예산정책처, 「2020 NABO 장기 재정전망」, 2020
사회보장위원회, 「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」, 2020

국회예산정책처, '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' 보고서

<중부담·중복지 복지국가의 진로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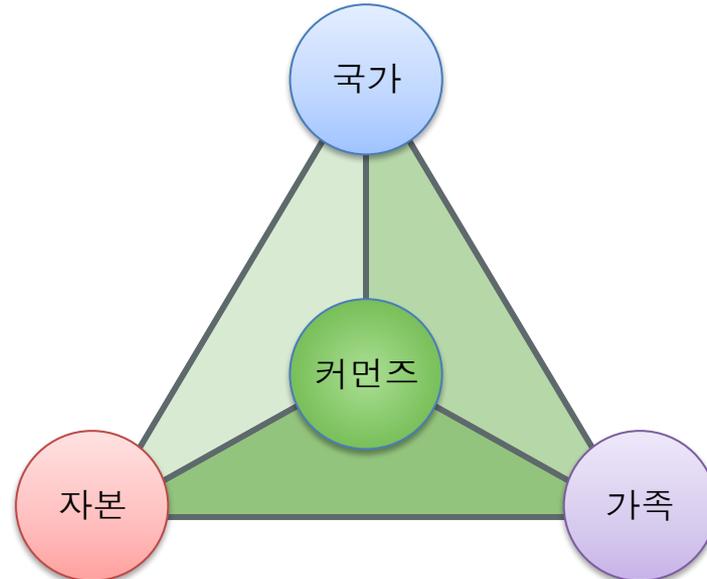


국가를 커머닝하기 : 세금교환 □ 사양교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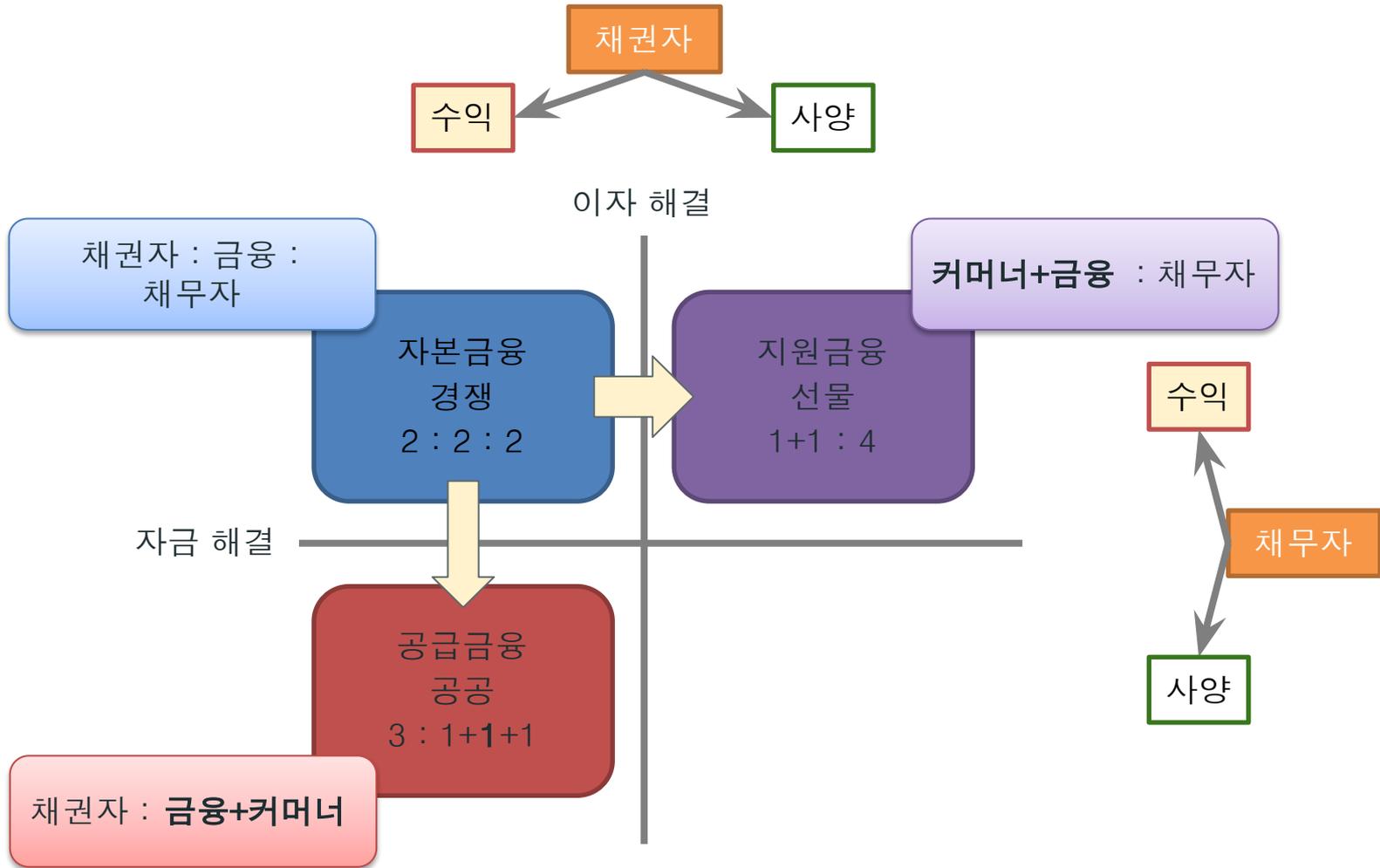
- 모두를 수탈해서 생긴 공동의 자원이라면 공동의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커먼즈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음.
- 세금이 커먼즈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인 것은 사실이지만,
- 세금을 활용해서 만든 커먼즈가 여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누군가에게는 그저 국가에 의한 세금 집행 또는 세금 낭비로 보여질 가능성.
- 세금을 활용해서 만든 커먼즈가 국가의 지속적인 조력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? 국가의 변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커먼즈?
- 세금교환의 전환 가능성
 - 조세정의 : 자본수익의 재분배. 불평등의 해소
 - 참여예산 : 세금 집행의 권한을 돌려주기
 - 자치 : 커먼즈의 생성을 보조하고 축소되는 국가
 - 저항 : 부당한 수탈에 거부하기
 - 분담 :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
 - 커먼즈에 자발적으로 공유하기

사양교환에 기반한 커먼즈

- 사양교환의 특이함은 다른 세가지 교환과 다르게 모두가 사양하기 때문에 모두의 것으로 남아 있는 커먼즈가 있다는 것.
- 소유자가 정해져 있는 상품, 세금, 선물 교환과 달리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에게 속하고, 외부에 열려 있는 공동자원체제
- 다른 국가, 자본, 가족에서 시작하고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, 다른 층위에 자리함으로써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커먼즈?



커먼즈금융



커먼즈금융

